

# “한국, 전 세계에 부정확한 정보 발신”

일본 총리 후보 다카이치 역사문제 관련 강력 공세 위안부 다룬 교과서 반발 야스쿠니 참배 반복 시사

일본의 첫 여성 총리에 도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사진)이 역사 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공세를 예고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일제의 국가 폭력 책임을 부인해 온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일본의 우경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

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다카이치 전 총무상은 위안부나 징용 문제 대응에 관해 “역사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듬어 각 성청(부처)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부서가 내각관방에 있으면 매우 하기 쉬울 것”이라고 15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중국이나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여러 수단으로 발신하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 외교’ 나 정보 발신은 너무 약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내각관방은 일본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이다.

다카이치는 자신이 신봉하는 극우 사관을 확산하기 위해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전담 기관을 권력 중추인 총리관저에



두겠다는 구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 일본군 위안부 동원 문제를 다룬 중학교 교과서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반일적 교과서’라며 아베 신조 당시 2선 중의원의원 등이 1997년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을 결성해 공격에 나설 때 간사장 대리로서 그를 옹호하는 등 일찍부터 우익 사관을 추종했다. 이 모임이 1997년 12월 펴낸 책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의문’에는 이들이 문제 삼은 교과서가 “너무도 굴욕·자학적이며 이를 교재로 사용해 성장하는 젊은이가 일본인으로서 애국심도 긍지도 가질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다카이치의 글이 실려 있다.

총무상 재직 시절 각료 자료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적으로 참배해 외교 갈등을 일으킨 다카이치는 자신이 총리가 되더라도 참배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총리 재임 중 다카이치를 요직에 반복적으로 기용한 아베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다카이치의 선거 캠프에는 그간 우익 색채를 드러낸 인사들이 여럿 합류했다. /연합뉴스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국제 지원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협조했는데 감사 대신 자산동결”

탈레반 정권, 국제 지원 요청 “유엔·미국 제재 논리 없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외교 수장이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요청했다.

탈레반은 자산 동결과 제재를 통해 자금줄을 끊은 미국에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은 전쟁으로 피해를 본 국가이며 교육·보건·개발 분야에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무타키 장관은 “국제 사회는 아프간 지원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

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 한 사람이 대피할 때까지 미국을 도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감사하는 대신 우리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선거를 치를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타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아프간 내부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타키 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아프간 영토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미국을 피해 본 국가이며 교육·보건·개발 분야에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타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 영국, 부스터샷으로 코로나 대응

영국이 부스터샷(추가접종) 백신을 내세워 가을과 겨울철 코로나19에 대응키로 했다.

단,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마스크 착용, 백신여권 등의 ‘플랜 B’도 마련해놨다.

영국은 다음 주부터 50세 이상과 일선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시작한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전문가 권고에 따라 50세 이상과 일선 의료 인력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한다고 말했다고 BBC와 스카이뉴스 등이 보도했다.

추가접종은 2차 접종 6개월 이후에 하며 화이자 백신이 권고된다. 화이자 없다면 모더나 반 회분을 사용할 수 있고, 화이자·모더나에 알레르기 문제가 있다면 아스트라제네카로 대체할 수 있다.

자비드 장관은 부스터샷이 만 12~15세 청소년 백신 접종과 함께 영국 정부의 겨울철 코로나19 주요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 자비드 장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에서 백신 면역력이 약해지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스터샷은 장기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2,400만 건 감염이 방지됐고 11만2,000명 이



미사 집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슬로바키아를 방문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현지시간) 지방도시 프레쇼브의 메스츠카 스포츠보탈 할라 광장에서 열리는 비잔틴 양식의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상이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위험 요인이지만 백신 덕분에 영국이 아주 제한적인 규제만 둔 채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 중 한

곳’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잉글랜드 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조너선 반-탐 교수는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영국이 힘든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존슨 총리도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백신 여권,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등의 방안이 담긴 ‘플랜B’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마스크 착용·백신여권 등 ‘플랜 B’ 마련 자비드 장관 “장기적 바이러스 통제 수단”

## 중국 “시진핑 사상으로 인터넷 통솔”

‘사이버 문명건설...’ 발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양”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대중문화계에 이어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홍색 정풍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사이버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간해 각 지역과 각 부문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관영매체인 중국중앙TV(CCTV)가 14일 보도했다.

‘의견’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사이버 강국 관련 중요 사상

과 정신문명 건설에 관한 중요 논술을 관철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견은 “사이버 공간 사상을 유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터넷 콘텐츠 건설을 통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인터넷 문화 건설을 이끌고 광범위하게 뉴스 사이트, 상업 플랫폼 등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사회 각 방면에 전달한다”는 내용도 의견에 포함됐다.

인터넷을 통한 공산당사 학습 및 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해 당이 혁명, 건설, 개혁 등 역사적 시기에 얻은 성취를 전파한다는 내용도 의견에 담겼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번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